

조지아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강부균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bgkang@kiep.go.kr, Tel: 3460-1242)

차 례 ●●●

1. 조지아의 경제 현황과 경제발전전략 수립 배경
2.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조지아(Georgia)는 1991년 독립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으나 2004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2008년 금융위기 및 러시아와의 5일 전쟁으로 경제가 잠시 주춤해졌으나 곧 회복되어 성장세를 누리고 있음.
 - 2003년 말 장미 혁명 이후 조지아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2007년까지 연평균 9.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대내외 여건 악화로 2008년, 2009년에 경제성장률이 각각 2.3%, -3.9%로 떨어졌으나 2010년부터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FDI 유입액도 증가하는 추세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지아 경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높은 실업률과 해외자본 의존도에 따른 경기변동 취약성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지아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된 2011년 10월 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부문 개선을 목표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 2011~2015'을 발표함.
 - 이 경제발전전략은 △ 거시건전성 강화 △ 투자환경 개선 △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발전 △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요약되며, 예산적자 및 무역적자 감소,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FTA 등 자유무역체제의 적극적인 활용, 교통·관광 등 인프라 현대화, 지역별 개발 프로젝트 추진, 교육 및 연금제도 개선 등을 주요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 조지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실행 의지가 매우 강하나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과 산업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 및 세계경기 둔화, 2012년 10월 총선 및 2013년 말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2011년 8월 주한 조지아 대사관 개설, 2012년 3월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조지아 양국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바, 한국은 조지아를 새로운 투자처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여 향후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조지아 정부가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조지아 정부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지아 정부가 자유산업지대(FIZ) 조성 및 교통·에너지·관광·인프라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조지아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조지아의 경제 현황과 경제발전전략 수립 배경

■ 1991년 독립 이후 ‘장미 혁명’¹⁾이 일어난 2003년까지 조지아는 경제난에 시달렸으나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4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조지아는 독립 이후 1991~93년 기간에 민족분쟁²⁾을 겪으면서 1992년 경제성장률이 -45%를 기록하는 등 15개 구소련 구성공화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경제난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2003년 11월 ‘장미 혁명’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구소련 외무장관 출신의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가 권좌에서 축출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카쉬빌리가 대통령직을 맡고 있음.
- 장미 혁명 이후 조지아는 부패척결, 세제개편, 교역협력 확대, 투자제도 간소화 등에 경제개혁의 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옴.
- 이후 2007년까지 조지아는 연평균 9.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GDP 규모가 약 2배 증가함.

■ 2008년 러시아와의 5일 전쟁³⁾과 글로벌 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이 잠시 주춤했으나 곧 회복하여 성장세를 누리고 있음.

- 조지아는 2000년대 중반 10%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구가했으나 글로벌 위기와 5일 전쟁으로 2008년에는 2.3%, 2009년에는 -3.9%로 하락함(표 1 참고).
- 그러나 2010년 6.3%, 2011년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IMF는 조지아 경제의 중기적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글로벌 위기 이후 10%대 이상을 기록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7.1%, 2011년 8.5%로 다소 안정되었으며, 외환보유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조지아는 2012년 ‘Ease of Doing Business’에서 2005~11년 기간에 투자환경 개선성도가 가장 큰 국가(top reformer)로 선정됨.
 - 조지아는 평가대상 183개국 가운데 2011년의 17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16위를 차지하였으며(2005년 112위), 특히 세금납부(paying taxes), 자금조달의 용이성(getting credit)에서 2011년보다 각각 20위, 13위나 상승함.

1) 장미 혁명(Rose Revolution):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조지아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음.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부패로 인해 경제발전이 지체됨. 혁명이 일어난 2003년에는 1인당 GDP가 600~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최악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11월에 실시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주장함. 장미 혁명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총 대신 빨간 장미를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임.

2) 조지아는 1991~93년에 분리주의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South Ossetia), 압하지야(Abkhazia)와 내전을 치렀으며, 지금까지도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함.

3) 5일 전쟁: 2003년 장미 혁명으로 집권한 사카쉬빌리 정권의 친서방 정책으로 조지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이 사건으로 양국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음. 5일 전쟁은 2008년 8월 조지아 정부가 분리주의세력 진압을 위해 남오세티아에 군대를 파견하자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중재로 곧 중지되었음.

표 1. 조지아의 거시경제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e)
GDP(십억 달러)	8.1	7.7	8.2	8.8	9.1
실질 GDP 성장률(%)	2.3	-3.9	6.3	6.8	4.1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1.7	7.1	8.5	7.2
정부부채(십억 달러)	3.46	3.73	4.29	-	-
경상수지(십억 달러)	-3.2	-1.3	-1.3	-1.6	-1.7
수출(백만 달러)	2.4	1.9	2.5	2.6	2.8
수입(백만 달러)	6.3	4.3	5.0	5.4	5.8
환율(라리/달러, 평균)	1.49	1.67	1.78	1.69	1.65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1,481.2	2,110.2	2,263.8	2,818.2	-

주: (e) 전망치.
자료: Global Insight, EIU.

■ 한편 조지아의 대외경제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2011년 터키,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중국 등이 주요 교역국임.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조지아의 주요 교역국이었으나 양국의 관계악화로 인해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CIS 국가들과의 교역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후 조지아의 대(對)러시아 수출액이 줄어들어 2011년에는 2005년의 약 1/5 수준인 360억 달러로 줄어들.
- 주요 수출품은 와인 · 견과류 등 농산품, 철금속, 중고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원, 자동차 등임.

표 2. 2011년 조지아의 주요 수출입 국가 및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총수입액	7,057.76		총수출액	2,189.14
1	터키	1,272.43	1	아제르바이잔	425.91
2	우크라이나	705.58	2	터키	227.58
3	아제르바이잔	610.79	3	아르메니아	223.04
4	중국	524.76	4	카자흐스탄	156.87
5	독일	480.59	5	미국	143.47
6	러시아	389.71	6	우크라이나	141.25
7	불가리아	255.55	7	캐나다	114.79
8	미국	245.80	8	불가리아	93.69
9	아랍에미리트	226.38	9	이탈리아	75.50
10	루마니아	188.31	10	독일	49.06

자료: 조지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재구성(2012. 6. 15).

표 3. 2011년 조지아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및 유치액

(단위: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총액	2,014.84	1,563.96	658.40	814.50	980.60
1 네덜란드	299.28	135.87	32.59	73.36	213.37
2 덴마크	158.13	0.26	-0.43	0.02	99.94
3 사이프러스	148.64	26.17	-1.61	40.39	94.24
4 터키	93.87	164.53	97.94	91.79	77.39
5 러시아	88.99	26.21	10.25	47.88	52.33
6 아제르바이잔	41.37	23.94	29.82	57.96	44.76
7 룩셈부르크	9.25	5.73	9.50	7.06	41.87
8 버진아일랜드(영국령)	187.82	156.85	35.43	40.24	40.77
9 영국	145.47	148.91	72.31	58.96	37.22
10 인도	0.06	27.00	0.27	14.89	29.97

자료: 조지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재구성(2012. 6. 15).

■ 2000년대 증가세를 보였던 조지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표 3 참고).

- 2007년 약 20억 달러에 이르렀던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최근 FDI 유입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5월 전쟁 직후 국제사회는 3년에 걸쳐 조지아에 총 4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중 20억 달러는 원조의 형태로, 나머지는 저금리의 차관 형태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최근 조지아 정부는 IMF에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2년 단기차관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는데, 이것이 승인될 경우 조지아의 FDI 유입 사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향후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

- 2004년부터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해왔지만 여전히 빈곤 · 실업률 ·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성장에 따른 혜택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함.⁴⁾
- 빈곤율(poverty head-count ratio)은 2009년 24.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011년 15.5%로 16.3%였던 2010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또한 2003년 0.404였던 지니계수가 2008년에는 0.41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장미 혁명 이후 경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줌.

■ 또한 조지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글로벌 위기 발생 이후 주요 ODA 또는 FDI 유입처였던 미국, EU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확보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조지아는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최근 수출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적자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4) George Tarkhan-Mouravi(2009), *Assessment of IDP Livelihoods in Georgia: Facts and Policies*, p. 8

- 한편 조지아는 ODA · FDI · 해외송금액 등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순 GNI에서 ODA가 4~10%를 차지해왔으며, 2010년에는 5.5%, 6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함. 같은 해 FDI는 8억 1,400만 달러로 GDP의 약 10%를 차지함.
- o 또한 최근 들어 해외송금액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FDI 금액을 상회하고 있음.
※ 2011년에는 3분기 동안 해외송금액이 전년동기대비 19.6% 늘어난 8억 1,3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조지아 GDP의 6%를 차지함.⁵⁾

■ 조지아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전략으로 조지아 내 FDI를 증가시켜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원조국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조지아 ODA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송금액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조지아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된 2011년 10월 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부문 개선을 목표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 2011~2015’을 발표함.⁶⁾
- o 이 전략은 △ 거시경제 안정 △ 경상수지 개선 △ 친기업적인 투자환경 조성 △ 지역 물류허브 구축 △ 인프라 개선 △ 농업 발전 △ 교육제도 개선 △ 사회정책 개선 △ 양질의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 △ 도시 및 지방 발전 등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경제발전전략은 ① 거시건전성 강화, ② 투자환경 개선, ③ 인프라 구축, ④ 지역균형발전, ⑤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요약됨(표 4 참고).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예산적자, 정부부채, 무역적자 감소 등을 통해 거시경제지표 건전성을 강화하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악화에 대비함.

- 조지아 정부는 2010년 2,623달러였던 1인당 GDP를 2015년까지 5,000~6,000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나 세계경기가 악화될 경우 2012~14년의 연간성장률이 0~3%를 기록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

표 4.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 2011~2015

부문	주요 내용
거시건전성 강화	유로존 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에 대비해 무역수지와 외채규모,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 강화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반부패,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경제협력국들과 교역 확대
인프라 구축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및 관광 부문 발전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발전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업 인프라 현대화 시행
사회보장제도 확충	국민의 교육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5) Economic Policy Research Center(2011), *The Role of Remittances in Georgian Economy*, p. 7

6) Strategic “10-point plan” of the government of georgia for modernization and employment 2011~2015. 니카 길라우리(Nika Gilauri) 조지아 총리에 따르면, 이 전략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 6개월마다 수정될 예정임.

- 2010년 GDP의 6.6%였던 예산 적자 비중을 2014년부터는 3% 이하로 유지하고, 세계 경기침체 악화 시에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2010년 34%).
-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2015년까지 은행자산과 예금 및 대출 규모를 확대하며, 2010년 약 28억 달러(금 제외)였던 외환보유액도 늘릴 계획임.
- 한편 2010년 -22.1%를 기록한 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 비중을 점차 줄이고, 상품 및 서비스 수출규모와 관광산업 수익은 2015년까지 연간 15~20%씩 확대할 예정임.

■ 역내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FTA 등 자유무역체제를 적극 활용함.

- 세제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FDI 유입 규모를 최소 GDP의 6%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임.
- 조지아 정부는 자유산업지대(FIZ)를 조성하여 역내 이윤세 및 VAT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⁷⁾ 기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교통 인프라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음(그림 1 및 표 5 참고).
 - 조지아는 미국 및 EU 등과 교역 시 일반관세관세제도(GSP)를 적용받고 있으며, 터키, CIS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현재 EU와 FTA 사전협상을 진행 중임.
 - 계속해서 공공서비스 향상, 부패척결 조치 등을 추진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 글로벌 브랜드 및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EU 및 인접국들과의 교역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임.

그림 1. 조지아 자유산업지대(FIZ)의 위치



자료: www.investingorgia.org, 저자 수정.

표 5. 조지아 자유산업지대(FIZ) 개요

□ 쿠타이시(Kutaisi) FIZ - 2009년에 Georgian International Holdings이 조성하였으며, 무역·서비스·중공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12,000~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 Fresh사는 설립 당해 5,58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향후 수년간 3억 9,6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이미 현대식 가전제품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을 시작, 2009년 11월 7일부터 수출을 시작함.
□ 포티(Poti) FIZ - 2008년 UAE의 RAK 투자청이 만든 남코카서스 최초의 특별경제지대로, 물류 및 비즈니스 센터를 위한 최신식 설비가 갖춰질 예정임. - 총 10억 달러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5,000~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트빌리시(Tbilisi) FIZ - 트빌리시 중심가 및 트빌리시 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될 예정으로 호텔, 상가 등이 설립되어 비즈니스 센터로 기능할 전망임.

■ 교통의 원활화 및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풍부한 수력자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 확대는 물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개발을 중점목표로 제시하고 있음.⁸⁾

7) 2007년에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지대(FIZ) 설립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역내 진출 해외기업에 특혜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함. 현재 쿠타이시, 포티 FIZ가 조성되었으며, 트빌리시 FIZ도 설립 중임.

8) 조지아 정부는 2011년 6월 28일 에너지·관광·농업 부문 등의 대규모(5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영 파트너십 펀드(Partnership Fund)를 설립하였음. 현재 포트폴리오는 GOGC(Georgia Railway, Georgian Oil&Gas

- 조지아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지역으로서 통과국(transi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트빌리시-바투미 고속철도 건설에 4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며, 거대시장인 중국과 서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가 건설 중임.
- 항공노선 다각화를 위해 저가항공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중국 · 인도 · 중동 · 중앙아시아 · 서유럽 국가들 간 직항수를 늘려 항공 이용객수 50% 증가를 목표로 함.⁹⁾
- 2015년까지 선박 이용객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흑해 운송량 증대 및 운송방법 다양화를 강구하고 있음.

표 6. 조지아 도로 및 철도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개시	종료	규모(백만 달러)
도로	Natakhtari-Agaiani	2006	2008	46
	Agaiani-Igoeti	2007	2009	27.3
	Igoeti-Sveneti	2008	2011	101.2
	Sveneti-Ruisi	2009	2011	151.5
	Rikoti Tunnel rehabilitation	2009	2011	30.3
	Tbilisi bypass road	2010	2011	9
	Zestaponi-Kutaisi-Samtredia	2011	2013	239.4
	Kobuleti bypass road	2011	2013	190.9
	Tbilisi-Rustavi	2012	2013	64
	Ruisi-Rikoti	2011	2013	155.1
철도	Samtredia-Grigoleti-Gholoki	2012	2014	248
	Baku-Tbilisi-Kars railway	2009	2012	775
	Tbilisi-Batumi fast railway	2010	2013	415
	Tbilisi bypass railroad	2010	2013	275

자료: strategic "10-point plan" of the government of georgia for modernization and employment 2011-2015.

표 7. 조지아 항공노선 확대계획

연도	운영사	국가	목적지	주간 운항수
2011	19	19	28	197
2015	24	24	38	270

자료: strategic "10-point plan" of the government of georgia for modernization and employment 2011-2015.

- 조지아 정부는 수력발전을 통해 전력 내수 수요 충족은 물론 터키, 유럽, 중동에 전력을 수출할 계획임.
- 2011년 현재 8억 1,900만 달러를 투입해 10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2015년까지 32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해 13개의 수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¹⁰⁾
- 또한 석유가스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셰일오일(Shale Oil)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Corporation), GSE(Georgian State Electric System) 등 교통 및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9) 현재 포티(Poti) 공항을 건설 중(2012년 완공 예정)이며, 2015년까지 적어도 1개 이상의 글로벌 규모 저가항공 노선을 유치하고, 운항수를 늘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10) 2009년 한국전력과 SK엔지니어링&건설, 터키 누를사가 조지아 서부 나마크바니(Namakhvani) 수력발전소 건설 초기 협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금융위기와 합의실패로 중단된 바 있음.

- 2010년 관광객 규모는 전년대비 36%나 증가한 200만 명 수준으로 조지아 정부는 2015년까지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o 조지아 정부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스라엘, 발트해 국가 등 관광객 유치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저가항공사 투자를 유치해 서유럽 · 중동 · 아시아를 중심으로 직항노선을 다양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음.¹¹⁾

■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구조 다각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임.

-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인프라 및 기술 원조를 포함하는 ‘카케티(Kakheti)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 · 상수도 개보수 등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임.
- o 2010년에 1,000km의 상수도 파이프라인이 재설비되었으며, 최근 해마다 3,000km의 도로가 재보수되고 있는 바, 2012~15년 기간에 이들 인프라 부문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조지아 정부는 곡물자급력 제고, 와인 수출시장 다각화를 우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 기술 및 관련 인프라 현대화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o 2015년까지 농경지를 50%까지 늘리고, 밀 내수 수요를 50%까지 충족시킬 계획으로 고효율 종자를 제공하고 현대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농업기술 및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o 또한 와인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고, ‘크베브리(Kvevri)’¹²⁾ 와인 브랜드 개발과 함께 와인 관광산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교육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연금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함.

- 새로운 ‘국가교육계획’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등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임.
- o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어 · 컴퓨터 등 자격시험을 통과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어 사용국 출신 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학생 20명당 1대 수준인 컴퓨터 보급률을 2015년에는 10명당 1대로 높일 계획임.
- o 바투미에 글로벌 수준의 기술대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테크노파크를 조성해 교육 및 과학기술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임.
- 또한 빈곤 극복을 위해 연금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구조사 방법론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
- o 2011년 9월 1일 최저 연금액이 100라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향후 건강보험 바우처(voucher)를 포함해 100달러에 이르는 연금 패키지를 60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할 계획임.

11) 특히 정부는 조지아를 겨울스포츠 관광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산악 스키 등 겨울 스포츠 인프라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스카 · 해안리조트 · 레스토랑 · 와인 및 생태관광 등도 유망 분야로 홍보하고 있음. 현존하는 스키 · 해안 리조트 등의 경우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부족하고, 불편한 항공편과 열악한 도로 · 숙박 인프라, 낮은 서비스 수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12) 조지아의 전통 와인은 크베브리라 불리는 항아리에 포도의 줄기와 씨를 분리하지 않고 으깨 넣어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침.

3. 평가 및 시사점

■ 조지아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거나 2015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1인당 GDP 5,000~6,000 달러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임.

- IMF는 2012년 초에 조지아 경제가 2015년까지 연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다소 하락할 수 있음.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조지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환경 개선 및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글로벌 위기 또는 유로존 위기 등의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조지아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정부는 향후 경제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행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임.
- 다만 향후 현실적인 조건과 산업별 발전 가능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재정위기 및 세계경기 둔화와 2012년 10월 총선 및 2013년 말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조지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건전성도 향상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10월 총선 및 2013년 말 대선을 앞두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등 보다 확장된 재정정책을 펼치거나 유로존 위기와 세계 경기침체가 확산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조지아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해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경기 둔화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난 5월 22일 승인된 조지아 정부의 2012년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 인프라 투자예산이 당초 2억 9,700만 라리에서 3억 9,900만 라리로 늘어날 전망이다.

■ 조지아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최단거리를 잇는 지점으로서 물류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국들의 인구까지 고려할 경우 잠재시장 규모가 약 10억 명에 이르는 등¹³⁾ 지경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미 남코카서스 지역에서는 물류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트라세카(TRACECA) 프로젝트¹⁴⁾ 등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경우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임.

13) USAID(2007), “Overview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 in Georgia,” p. 2.

14) TRACECA: 흑해 지역의 무역과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개국이 ‘유럽-코카서스-아시아의 국제운송망에 관한 다자간 기본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발족됨. 2009년 이란이 가입하면서 현재는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조지아·이란·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몰도바·루마니아·타지키스탄·터키·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1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 현재 BTC(Baku-Tbilisi-Ceikhan) 송유관, 바쿠-슈사(Baku-Supsa) 송유관, 바쿠-바투미(Baku-Batumi) 송유관, BTE 가스관 등을 통해 카스피해 석유·가스 대부분이 조지아를 통해 운반되고 있어 에너지 운송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음.¹⁵⁾

■ 한편 2011년 8월 주한 조지아대사관 개설 이후¹⁶⁾ 양국 정부인사 교류, 조지아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으며, 2012년 3월 양국간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지아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등 한국을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키쉬빌리 대통령은 “한국이 1970년대 이후 빠른 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경제발전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라고 평가하며, “조지아도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밝힘.¹⁷⁾
- 2011년 10월 베라 코발리아 경제지속개발부 장관을 포함한 조지아 정부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¹⁸⁾ 2012년 2월에는 알렉산더 케타구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장관과 라마즈 니콜라이슈빌리 지역개발 및 인프라부 장관이 방한하여 한국·조지아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또한 올해 4월 조지아에서 한국·조지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을 당시 양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경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교 수립 20년 만에 양국 경제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¹⁹⁾

■ 한국은 조지아를 새로운 투자처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여 향후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조지아 정부가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조지아 정부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있음.
 - 자원이 부족하고, 내전을 겪은 바 있는 조지아와 비슷한 조건에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재 선연적 성격이 강한 조지아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조지아 정부가 FTZ 조성 및 교통·에너지·관광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조지아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보통신·교통 인프라 등의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한국의 EDCF 자금을 활용한 참여방안 모색이 필요함. KIEP

15) Gia Jandieri(2009), *Economic Reforms in Georgia, Their Relevance for Africa?*, Brenthurst discussion paper 7/2009, The Brenthurst Foundation, p. 6.

16) 아카키 미나쉬빌리 조지아 의회 외교관계위원회 의장은 주한 조지아 대사를 임명하면서 “조지아의 외교무대가 확대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는 특히 투자유치 잠재력이 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Georgia Times*(2011), “Georgia has appointed the first ambassador to South Korea.” (9. 6)

17) 조지아 대통령실(2012), www.president.gov.ge. (3. 29)

18) 조지아 경제지속개발부(2011), “Korean businessmen are interested in doing business in Georgia,” www.economy.ge. (10. 19)

19) www.commercial.ge(2012), “New wave of Georgian-Korean Relations Blows into Economy.” (4. 26)